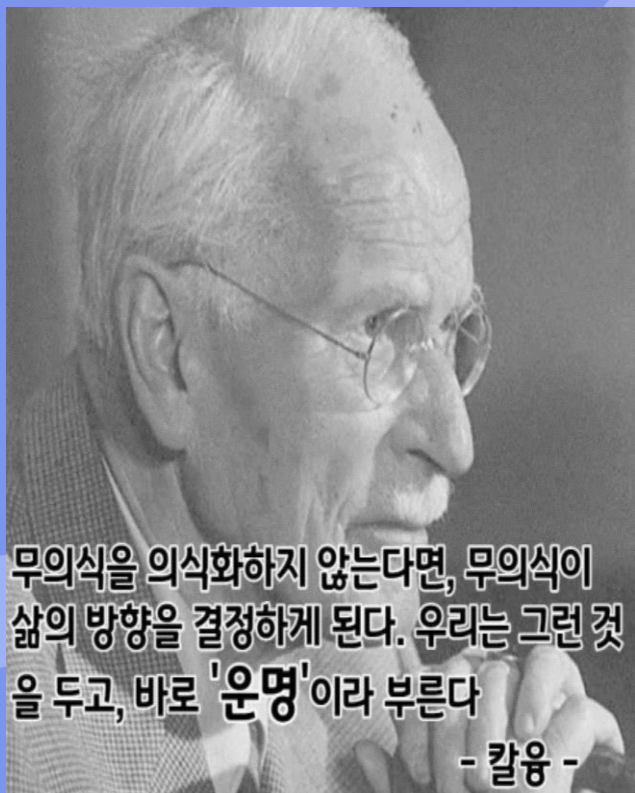


타로, 희망을 펼치다.

희망을 전하는 타로 이야기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 그런 것
을 두고, 바로 '운명'이라 부른다

- 칼 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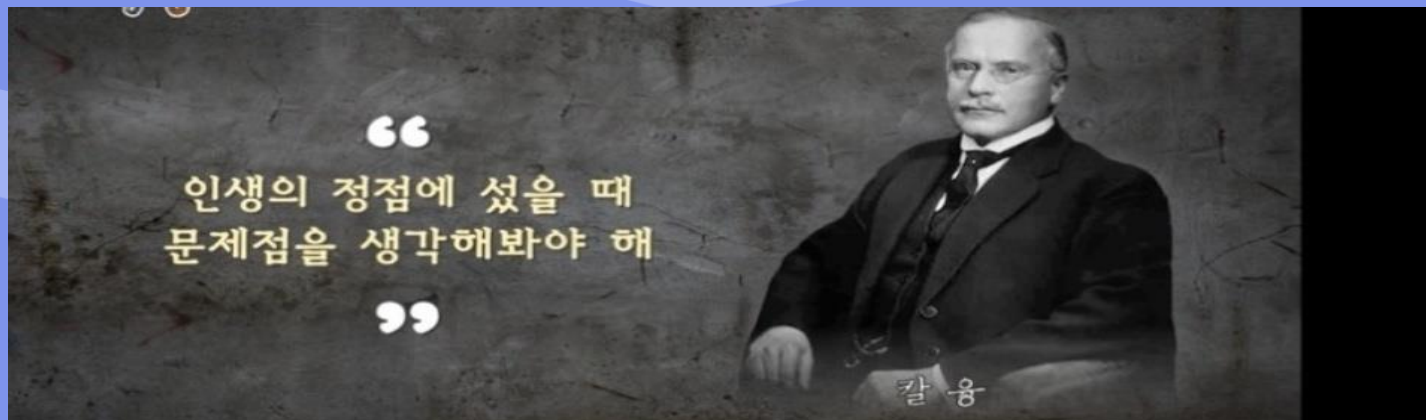
타로의 원리

칼 구스타프 융의 동시성 이론
<비인과적인 연결원리>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구스타프 융의 이론으로, 어떤 특정한 두 개의 사건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은 정신적인 사건과 물질적인 사건이 커다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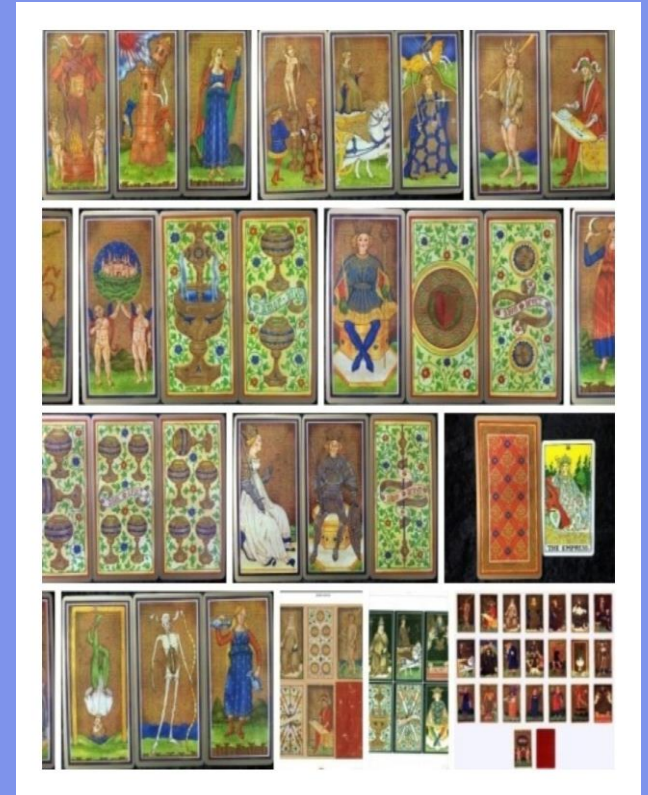
의식은 감각과 경험을 통해 외부 현상을 명료하게 인지하지만, 무의식은 의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암호와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





타로카드의 기원

타로카드의 기원은 문헌상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는 없지만, 14세기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번져나갔다. 초기에는 수공예로 귀족의 소장품이나 놀이의 형태로 제작이 되었으며, 최초의 타로카드의 형태로 78장의 타로 원형을 띄게 된 것은 1415년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 이다.



❖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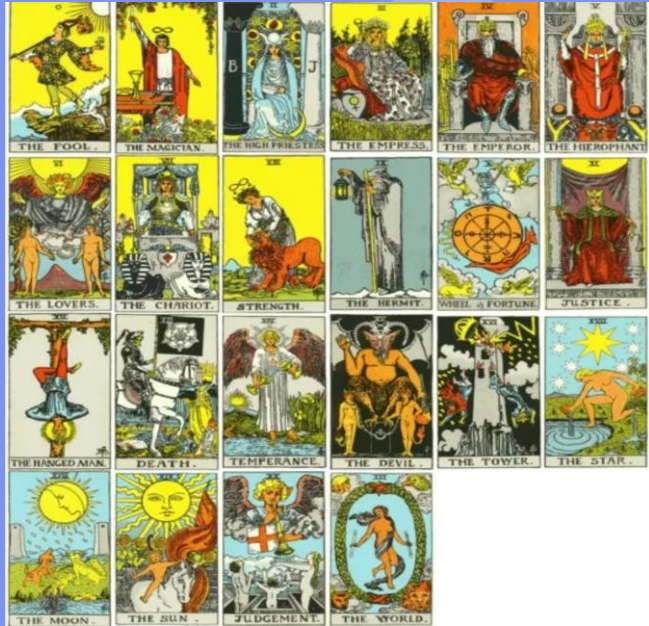
❖ 마르세이유 타로카드

본격적인 목판 기술의 발달로 서민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마르세이유 타로카드는 클래식 타로카드의 표준화가 되었다.



❖ 에틸라카드

점을 치는 도구의 카드로 장 밥티스트 알리에트가 만든 에틸라 카드는 18세기 타로카드의 대중화에 큰 인기를 끌었다.



❖ 라이더웨이트 타로

20세기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가 제작한 타로카드는 타로카드의 부흥기를 열었고, 현재까지 근대 타로카드의 상징적 체계를 확립한 근대 타로카드의 표준이 되었다.



타로상담의 순기능

*“밖을 보면 꿈을 꾸게 되지만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내면을 보면 스스로 깨어나게 될 것이다.”*



- 타로카드는 현재 자신의 내면 치유와 성장을 도와준다
-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투사의 도구로 활용된다
- 나를 찾고, 타인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다
- 정서적인 안정감과 사회적인 관심도를 증진시킨다.



타로상담의 의미

현대 사회의 발전이 가속화 될수록 다양한 외적 환경에 대한 심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



타로 상담은 타인의 심리적인 갈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내면의 치유와 성장에 도움을 준다. 또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자기 개발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타로상담 활용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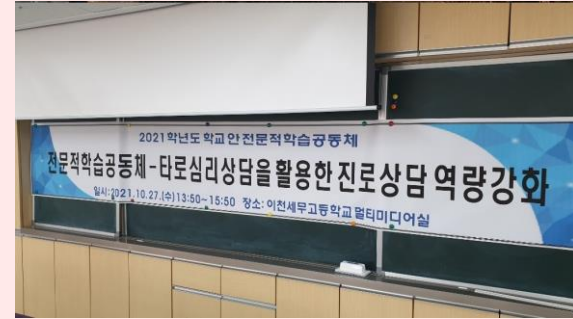
단순히 점을 치는 도구에서 벗어나,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문제에 대한 방향성과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나가는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다양한 지원센터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의 직무역량강화 교육
- 심리분석사, 진로코칭 종사자의 영역 확장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의 학교 및 we센터
- 자기이해, 자기분석을 통한 내적 통찰 강화

❖ 교사연수



❖ WE센터 교사연수



❖ 청소년진로체험활동



❖ 도서관부모소통교육



❖ 직업상담사 직무강화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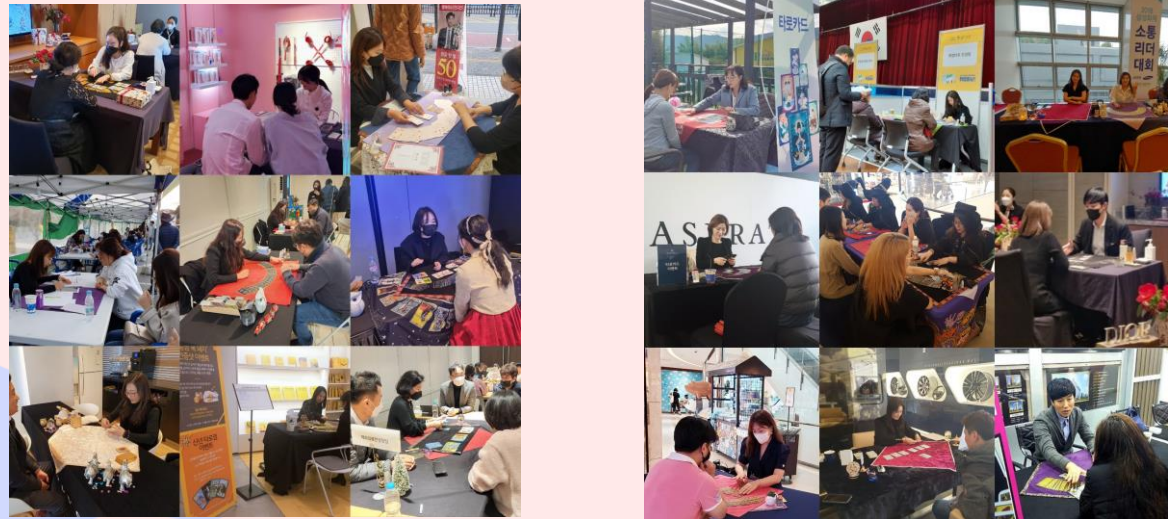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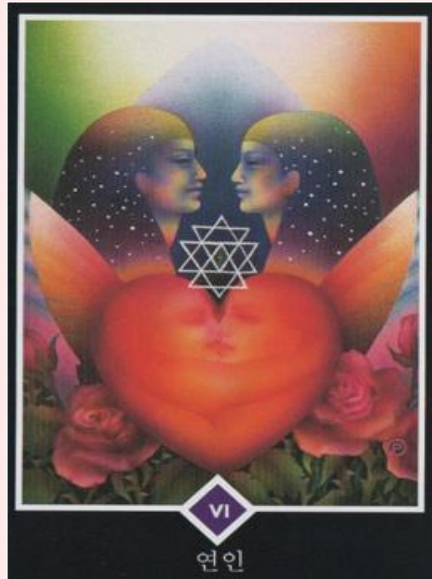


❖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 각종타로행사





감사합니다.

